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 Matthew 11:28-30 ]

###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공석우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 김은화 이화니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 열방을 섬기는 이들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Agape Hall (314)786-5018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11.5.2023

고린도의 소명자들 (5)  
하나님의 성전

1부 9:00 AM 2부 10:45 AM

LIVE

# 주 일 예배

##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Philippians 2장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sh 55:6-7
찬송	찬 35장 큰 영화로신 주 다같이
기도	윤순기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3:1-17, NT p 266
말씀	고린도의 소명자들 (5): 하나님의 성전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Called in the Corinthians(5): God's Temple
*결단의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사상을 믿는다. <성령이 중심이 아니다>.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다>. <직통계시가 중심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준 일이 없다. 누가복음 1:41절 이하에 읽어 보면, 마리아도 예수를 <아들>이 아닌 <구세주>로 보았다. 마리아도 죄인이고, 교황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며, 아담의 후손치고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여 성육신하였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고후 5:21). 어떤 분은 성령을 강조한다. 이 역시 잘못된 교리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며, 성령도 하나님이며, 성부도 하나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 분 계심이 아니요, 한 분 하나님에게 삼위가 계신다. 이것은 창세기 1:26, 마태복음 28:19, 고린도후서 13:13 등이 입증한다. 성령 역시 누구를 증거하는가? 요한복음 14:26이나 요한복음 15:26절을 읽어 보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사도행전 1:8에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 증인’,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가르치신다. 그러기에 16세기의 Scotland나 Holland의 종교 개혁가들은 화형에 목숨을 잃으면 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다. 오직 성령을 외친 것이 결코 아니다.

### 3. 오직 믿음 (Sola Fide)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믿음>을 믿는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뤄진다. 믿음은 그 자체가 agent가 아니라 means이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지는데, 믿음이란 그 은혜를 받는 방편(means)인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행위>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말씀에 의하면 그 약속이 먼 훗날 이뤄질 것을 의심없이 믿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믿음이란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고후 5:7).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다.

(출처: 툴립선교회, 김명도 목사)

##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사상

지난 주에 이어서 전에 살펴봤던 “개혁주의 신앙”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들이 말씀 반석 위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한인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글은 ‘틀립선교회’의 김명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사상>은 다섯 가지이다. 그 다섯 가지란, 1. 오직 성경(Sola Scriptura), 2.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3. 오직 믿음(Sola Fide), 4. 오직 은혜(Sola Gratia), 5.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Soli Deo Gloria) 등인데,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자.

### 1.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것이 성경 중심이다. 설교도, 예배도, 찬송도, 교회 행정도, 친교도, 개인의 직장이나 가정 및 사회생활도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다. 성경 이외의 어느 문헌도, 어느 권위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없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리를 가르친다. 그들은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교황의 무오설>을 주장한다. 성경 해석도 교

황이 해석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는 목사나 신부나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유일한 최고의 권위이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며>, 어느 인간도 결코 독단적으로 해석함을 용서치 않는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공부, 특히 catechism(요리문답) 공부에 집중한다. 개혁주의자는 <성경 기록 당시 사용되었던 특별계시의 방법은 이제 종결되었다>고 믿으며, 어떤 <직통계시>도 인정치 않는다.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모두 충분히 주셨다고 믿는다. 즉 성경의 필요성과 함께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충족성, Sufficiency of the Scripture>를 믿는다.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파에서는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다.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으면, 직통계시, 환상, 입신, OBE(Out-of-Body Experience), NDE(Near-Death Experience) 등을 따르게 되어 성경만을 인정치 않고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게 된다. 고로, 성경에 다른 것을 보태는 결과가 된다.

### 2.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 성서교독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Philippians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소명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소유의 밭에서 각자의 사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함께 이뤄가는 기쁨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는가? 혹 다 내 소유라는 소유자는 아닌가? 또한 나는 옆에서 기쁨을 주는 동역자가 맞는가? 행여 기쁨은 커녕, 더 힘들게만 만들고 나 때문에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세요.

2. 소명자는 하나님의 건축자로서, 나의 책임을 깨달아 깨어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예수 반석 위에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보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성전 담게, 주님 따라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건축해 나가는가? 또한 맡겨주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정신차리고 허락해 주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세워나가는가? 점검해 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

11/5		11/12	
대표 기도	윤순기 장로	대표 기도	윤순화 장로
교회 안내	김동한 집사	교회 안내	김봉구, 문춘자 집사
번역/통역	김예람 자매, 송명신 자매	번역/통역	이화니 자매,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중국 구역	애찬 담당	칠레 구역
교회 청소	케냐 구역 (11월)	교회 청소	케냐 구역 (11월)

향기로운 예물 10/29/2023

주일	\$840	건축	\$0	주일학교/유스	\$0
십일조	\$2,544	첫열매	\$0		
감사	\$470				
선교	\$1,020				
구역선교	\$0			헌금총액	\$4,874.00

헌금 외 수입금

입금총액 \$4,874.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지난 주일 안수집사/권사 투표 결과

지난 주일 안수집사/권사 투표 결과, 전원이 2/3 이상의 득표로 피택되었습니다. 앞으로 담임목사님의 교육 후, 12월 3일 (주) 2부 예배 중에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1) 피택안수집사 후보: **김동한, 홍달표.**

(2) 피택권사 후보: **김기홍, 김선아, 문춘자, 백영희, 성영숙, 손인자, 송계자, 신정자, 이명순, 이무연, 이정애, 정미자**

2. 새가족 환영

오늘 저녁 5시에 아가페홀로 오세요!

3 정기당회

오늘 식사교제 후 1PM 회의실

4. 추수감사절 당일

추수감사절 당일(11월23일 목요일 5PM) 외로우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담임목사님 가정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니 그냥 오셔서 함께 식사교제 나누시면 됩니다. 미리 담임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단, 단순히 도와주러 오시지는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중국 구역 (임병갑 장로 배은숙 권사)과 이주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이정애 (팽중수 집사) 집사님 가정 위해서 - 중호

교회행사

11월 5일 (주)

정기당회  
Daylight  
Saving Time Ends

새가족환영

@5PM

11월 19일 (주)

추수감사주일

11월 23일 (목)

추수감사절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디너  
@5PM

12월 3일 (주)

임직식  
(2부 예배 중)  
정기당회

12월 10일 (주)

예결산 위원회

12월 17일 (주)

제작회 총회

12월 24일 (주)

성탄예배  
공동의회

12월 31일 (주)

송년예배  
송구영신예배  
(11PM, 성찬식)